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보도자료

| | | | |
|---|---|---|---|
| **제공일자** | 2026. 11. 20.(금) | **사진 · 영상** | 사진(○), 영상(×) |
| **보도일자** | 2026년 11월 20일(금)부터 | | |
| **담당부서** | 의회운영전문위원 | **담당자** | 박대종 전문위원(044-300-7410)<br>김현정 주무관 (044-300-7414) |

## 세종시의회 운영위, 의정활동 지원 강화·조직 운영 개선 주문

-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조례안·추경예산안 심사 등 -
-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점검 및 의회 운영 개선방안 논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9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2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 인사·조직 운영의 공정성 확보, 청소년 의회교실 활성화, 청사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인호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중·고등학생 참여 확대와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을 요청하고, 사무처의 인력 공백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 및 회의 운영의 절차적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동호 위원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방식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 이행을 당부하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직원 고충 관리체계 마련, 청사 1층 자료실의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이재준 위원은 청사 확장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와 의정활동 불편 최소화를 주문하고, 미디어팀 신설에 대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의원별 의정홍보의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정연희 위원은 찾아가는 의회교실과 본회의 참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 승진 기회 확대와 균형 있는 순환보직 운영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활성화와 생성형 AI 맞춤형 교육 확대를 주문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맞춰 의회 중심의 독립적인 인사·조직 체계 확립과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그 일환으로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장 나눔 등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안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